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박 금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당의 사상적일색화와 조직적단결을 실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당의 사상적일색화와 조직적단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신것이다.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여야 모든 당원들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극복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면서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

것을 당의 조직로선의 중요내용의 하나로 밝히시고 당건설령도의 전 과정에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당 제2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당사상사업을 개선하고 당의 사상적통일을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조국수호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41(1952)년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대렬이 늘어나고 미제와의 가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당정책교양과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힘있게 벌어지는 환경에 맞게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4월테제와 주체45(1956)년 4월에 진행된 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보고, 주체47(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하신 연설 등 여러 로작들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

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당사상교양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수 있게 당학습강령을 개편하고 당 및 근로단체교양망을 다시 정비하며 당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현직간부들을 위한 한달강습체계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잘 꾸리고 여러가지 혁명적출판물들을 더 많이 발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온 사회에 주체사상만이 짝 들어차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환경에서 우리 내부에 밖으로부터 자본주의병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사상적방어진을 튼튼히 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짝 들어차게 됨으로써 당의 사상적일색화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신것이다.

당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여야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전일체로 만들고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의 조직적단결을 위하여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창건하시면서 공산주의대렬의 분렬을 막고 공산주의자들을 폭넓게 결속한 통일적당을 창건하시려는 의도에서 지난 시기 종파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다 당에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종파행동을 계속하면서 당의 조직적단결을 저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주체 34(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날카롭게 비판하신 다음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그후에도 당의 조직적단결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우리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당원들을 발동하여 적발분쇄하시였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1(1952)년 12월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적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가려던 박헌영, 리승엽간첩도당을 적발숙청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시기에 있는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 그리고 주체47(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종파의 마지막 잔당을 청산하고 당의 조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주체56(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우리 당내에서 숙청하고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조직적단결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높은 실무능력, 고상한 인민적품성을 지닌 사람들로 간부대렬을 꾸리시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부들뿐만아니라 당원들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포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것과 함께 당장성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우리 당을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들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전위조직으로 꾸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하

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안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신것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주되는 문제이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환경으로 하여 한때 우리 당안에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적경향이 적지 않았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였으며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는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해방직후부터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조건에서 주체39(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과 주체40(1951)년 10월 조선인민군휴양소를 찾으시였을 때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가

르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적경향은 극복되지 않았고 전후시기에 이르러서는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전후시기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12월에 하신 연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사상투쟁을 벌려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상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일군들속에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말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4(1955)년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사대와 교조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주체67(197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주체77(198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서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오르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사대와 교조를 모르고 주체의 한길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유일사상체제,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령도하여오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되고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